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희망을
키웁니다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2015 Summer vol. 8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특집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4기



목차_Contents

- 03 권두언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기반 구축을
- 04 기획 북과의 접촉,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절실
- 06 광복70주년 분단 70년 기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에게 묻다
- 09 사업보고1 인도적 지원으로 만들어 가는 한반도 평화
- 10 사업보고2 축구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웁니다
- 12 사업보고3 민족의 한마음을 찾아서
- 14 사업보고4 함께 떠나는 DMZ 통일평화기행
- 16 우리함께 영화<코리아>
- 18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9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5년 7월 10일 주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 734-7070 팩스 02) 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길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무원, 박남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혜영,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이재술, 이흥우, 전정희, 정석주, 조호, 천정배, 최남섭, 최대석, 홍창진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권두언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기반 구축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에서의 남북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015년이 남북 공히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기에 올해 초 6·15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의 기대가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계절을 거슬러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으며 6·15 기념행사 개최문제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훨씬 지나도록 여전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히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자신들이 내민 손만 잡으라는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반년(半年)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면서 이를 되돌릴 동력은 사라진 것일까요?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상호간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뢰형성은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선도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지난 5월 1일, '광복 70주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협력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며, 남북 당국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민간단체의 소규모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등의 기본 물자지원을 여전히 규제하고 민간차원의 6·15 남북공동행사를 이전 정부와 같이 여전히 마뜩잖게 여기고서는 그 어떠한 대화제이나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제안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또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우리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인 실천입니다. 지난 2월 16일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박 대통령께서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나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동족애를 갖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은 매우 적절합니다.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 없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 영 식



북과의 접촉,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절실

꾸준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접촉의 전략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다시금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재성 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한국 NGO의 대북지원도 한계에

2015년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1995년 8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적어도 5.24 조치 전까지 한국 NGO들의 대북 인도지원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의 단계로 활착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온 분단과 작금의 남북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한국 NGO의 대북 지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지원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감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여기에서는 대북지원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논외로 하고 대북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된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지원단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이 평양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이는 모니터링 문제와 함께 가장 흔히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과 현장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단순 일회성 지원의 경우 현장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크게 문제가 되

지 않지만, 적어도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 NGO들이 추구해온 개발지원 형태의 사업에 있어서 현지의 인프라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한국에 비해 9배가량 높는데, 특히 수인성질환으로 인한 탈수가 주요한 영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탈수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액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초기 단순 수액제의 지원은 2005년 북한 현지에 수액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의 형태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¹⁾ 북한 현지에서의 수액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공장의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기 등 현지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NGO의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북한 스스로 생산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수액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도 단순히 지역만을 기준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방식임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는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대북인도지원을 찬성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글을 흔히 발견하곤 한다. 그런데 모니터링의 문제는 단순 물자 지원, 특히 대규모 식량 지원 등에 해당되는 문제로 오히려 남측의 민간단체들은 일찍부터 모니터링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의 단순물자 지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2년부터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위치한 정성의화중합센터에 수액제 공장과 일약공장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 물론 식량 등 단순 지원 형태의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였다.²⁾ 후원자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에게 있어서, 현지 모니터링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 NGO들이 추구해온 개발지원 형태의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매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협동농장에 대한 농업지원 사업의 경우 남측이 지원한 온실 자재가 온전히 현장에 도착하여 설치되어야만 온실 내 채소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어서 현지 북한 농민들에 대한 온실 재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측이 지원한 비료나 농약이 정확히 현장에 도착해 사용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0년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은 매 단계별로 꼼꼼히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는 NGO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는 주로 민간단체와 함께 방북해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보지 않은 측에서 제기하는 비판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은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계획 및 협의의 단계부터 해당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방북에 동참하여 때로는 자문의 단계를 넘어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자료의 축적을 위한 전문 보고서의 작성까지도

맡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예로 살펴보면, 단체의 실무 담당자는 북측과의 협의와 사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였고, 매 방북시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벼농사, 채소농사, 농기계 전문가들이 동행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건축, 도로, 축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민간단체의 실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효과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지난 20년 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 그리고 관계개선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냉전적 대결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고 믿는다. 접촉이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접촉의 전략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다시금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접촉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년간 몸담았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손에 잡은 책이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지만, 연암이 박제가 등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청의 문물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라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던 나이가 44세였다는 점이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명분에 얽매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연암의 '진정지견(眞正之見)'의 지혜가 절대

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규범적 판단이 너무 앞서거나 태일적 가치판단의 틀에 갇히면, 지명된 사실이나 현상조차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암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북벌(北伐)'이라는 선언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변화와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北은 청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반도 반대편에 위치한 '北韓'에 매몰되어 현대판 '북벌'을 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 무의미한 선언적 거대 담론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고, 실질적인 층위에서의 실리를 추구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리적 접근은 그간의 남북관계에 있어 다양한 경험,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생활 10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자” 결단

— 이 일 영 상임공동대표(전 아주대 의대 교수)

정리_ 손종도 부장 / 녹취_ 강지현 간사

[편집자 주]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맞이한 분단이 70년을 맞고 있지만 최근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표님들을 연속 인터뷰하는 기획물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96년 국내 6대 종단과 사회단체, 원로들이 참여한 범국민운동으로 창립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표에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이들 대표들과의 인터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잘 드러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내년 2016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이번 기획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기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에게 묻다]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이일영 대표다. 1945년생으로 지난 70년 분단의 세월을 오롯이 살아왔다. 게다가 북쪽이 고향이다. 국내에서 의대를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재직하다가 89년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다시 국내로 돌아온 그는 아주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 정년퇴임했다.

지난 4월 말 이일영 대표 인터뷰를 위해 구반포로 향했다.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구반포로 가는 길은 10여 년 전과는 너무나 변해 있었다. 하지만 구반포 지역은 이전 그대로였다. 고층의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길을 지나니 이전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구반포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언제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내가 내려오기 전 부친과 모친, 형, 여동생 이렇게 넷은 서울로 먼저 내려와 있었는데, 형은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걸을 수 있었고 여동생은 갓난 아이여서 업혀서 내려왔지요. 나는 어중간하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해주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건 언제인가요?”

“6.25 나던 해인 50년 4월에 내려왔는데, 외할머니의 결단이 있었지요. 외할머니가 교회에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데려가셨어요. 어느 날 나를 앞에 두고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별안간 이 아이가 고아가 될 거니까 빨리 데려다 주라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외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날 남쪽으로 일단 데려다 주셨지요. 그게 4월인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뻔 했는데, 그렇게 이산가족을 면한 셈이지요.”

“고향이 북쪽이었으니 어릴 때부터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은 분단이나 통일이거나 이런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백마고지 앞이더라고. 거기서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 여기 우리 고향이 바로 산 너머인데’, 그런 생각도 하고 분단에 대한 생각도 하고, 철책선 안에 옛날 마을 자리가 있었어요. 앞에 개천이 흘러가고 너무 아름다워. 그걸 보고 문득 통일이 되면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 그때뿐이었지. 그 다음에 바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고요”

이일영 대표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의대 졸업 후 군의관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재활의학에 대해 공부할 더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정말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 거는 미국 가서 한 10년 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재활의학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 때 생각이 났지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금 생각해도 참 극적인데,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 갈 때는 한국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생각이란 게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당시 미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해서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고 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좀 편해지고 아내도 의사여서 자리 잡고 한니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소위 ‘블루베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다음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도 인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간 지 딱 10년 되는 해에 별안간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소위 블루베리 사건인데,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보러 가요. 장을 보러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사오잖아. 그때가 블루베리 철이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샀어요. 집에 와서 잘 닦아서 식구들에게 먹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다 먹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들이 친구 아들과 함께 캠프에 갔었어요. 나는 보스톤에 살고 친구는 뉴욕에 사는데, 캠프는 펜실바니아로 갔어요. 친구가 펜실바니아 가서 뉴욕에 데려오면 내가 뉴욕에 가서 아들을 데려오려고 했지요. 뉴욕에 갈 준비를 끝내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흑변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는 그게 뭔지 알거든. 출혈이예요. 그걸 보고 내가 완전히 긴장을 했어요. 집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려



한국에 재활의학이 필요하니까 한국의 재활의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건데, 당시 내가 미국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4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한국에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게 내가 그때 내린 결론이었어요.

갔는데, 뉴욕 친구 집까지 가는 4시간을 죽음 가운데서 보낸 것이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가 39살이었어요. 이게 암인데, 암이 퍼져 ‘내가 죽게 되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은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았어요. 미국에 올 때는 한국에 재활의학이 필요하니까 한국의 재활의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건데, 당시 내가 미국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4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한국에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게 내가 그때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일영 대표는 뉴욕의 친구 집에 도착하는 4시간 내내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다. 그 생각의 결론은 ‘한국으로 돌아가자’였다. 그 흑변은 결국 블루베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일영 대표의 한국행에는 연이어서 나타난 극적인 우연이 더 필요했다.

“블루베리 사건이 끝나고 참 묘한 일이 연이어서 나타났는데, 얼마 후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의 은사님들이 너 한국에 오라고 한다고. 한국에도 재활의학이 필요하다고.”

시 이일영 대표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부부가 의사인 상황에서 큰 집을 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친구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은사님들의 말을 전하면서도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이미 자리를 잡아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일영 대표가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일영 대표는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우연은 이럴 때 발생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때 우리 장모님의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왔다는 건 곧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항공권을 구입할 돈이 없었는데, 아내가 별안간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보니까 장모님과 내가 한국 갔다 올 그만큼의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장모님 모시고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한국 다녀온다니까 좋아했지요. 그게 83년 10월이었어요. 장모님 모시고 한국에 와서 바로 모교(연세대학교)에 찾아갔지요. 마침 교수 공개 채용 기간이어서 원서 쓰고 은사님이 추천서 써 주시고 해서 덜컥 합격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직장을 얻었다.’ 아내는 경악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서 84년 3월 한국에 혼자 왔지요.”

※ 지면의 제한으로 인터뷰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전체 글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www.ksm.or.kr)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양두리 _ 정책팀 간사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일간 광화문광장에서 <통일박람회 2015>가 개최되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통일부와 시·도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언론·학술기관, 여러 분야의 대북지원 NGO, 탈북민 정착지원단체, 개성공단입주기업 등 총 145개의 단체가 145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인도적 지원으로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참여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살고 싶은 혹은 가보고 싶은 북한지역을 한반도 지도에 스티커로 붙여보며 통일 이후 달라질 생활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남과 북은 000이다”라는 슬로건을 만들며 남북관계를 다시금 되뇌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00여명이 응모한 슬로건 만들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문구는 바로 ‘남과 북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나누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남북의 분열만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울골은 시선을 슬로건에 담아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의 아픔을 지고 가는 동반자’, ‘같은 나무에 핀 꽃’와 같이 하나이자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그 외 개성만점 슬로건들은 우리민족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smseoul)

통일이 되면 가장 많이 가보고 싶은 곳, 살아보고 싶은 북한지역은 역시 북한의 심장인 평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금강산과 백두산 그리고 해수욕장과 스키장으로 유명한 원산이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 곳들을 우리 발로 딛을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이제 활기찼던 박람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축구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웁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축구교실은 축구 천재 메시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축구를 통해 '공평과 포용', '책임감', '존중', '신뢰'라는 평화가치와 친해지는 것. 이것이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의 목표다. 2013년 10월 시작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이 지난 5월, 4기를 배출했다. 4기에는 총 26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많은 자원활동 코치들이 함께 했다.

이예정 부장 _ 정책팀 / 평화나눔센터

“축구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배우지?”

4월 11일, 처음으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4기 어린이들을 만나는 코치진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합니다. 이미 3번의 평화축구교실을 진행한 터라 이력이 날만도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가르친다는 개념이 여전히 생소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를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된 이번 4기 프로그램에는 26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몸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해서', '축구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배운다는 건지 궁금해서'. 아이들 손을 잡고 운동장을 찾은 부모님들의 참가 이유도 아이들 수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풋살장 인근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부터 멀리



일산에서 온 친구들, 게다가 9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참여한 4기는 예전 어느 기수보다 여자 어린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첫날 수업은 헤드 코치인 댄 거진(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준비위원회 근무)을 비롯해 어린이들과 코치진, 그리고 어린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평화'의 모습들을 그려보며 앞으로의 평화축구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들게 될 4개의 평화 가치 「공평과 포용, 책임감, 신뢰, 존중」의 의미와 예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축구교실을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ground rules)을 어린이들 스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총 4강으로 진행됩니다. 각 강의는 몸과 맘을 준비하는 워밍업, 드리블, 패스, 헤딩, 슈팅 등을 주제로 한 기술 세션, 평화축구만의 다양한 규칙을 적용한(엔드존 게임, 심판없는 게임 등) 축구경기, 그리고 하루의 강의를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평화축구교실에도 승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타 축구교실과 다른 점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승리의 기쁨이 상대에게는 패배를 각인시키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4가지의 평화가



치가 경기 속에 구현됐는지. 평화축구교실은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고 아이들의 일상, 세상의 모습과 연결합니다.

평화, 함께 배워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배움은 더더욱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축구교실을 준비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코치진들은 끝없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쩌면 완성이라는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코치진들이 모두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어 배움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심판 없는 축구 경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군. 다음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 볼까?'

TIP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l)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축구와 스포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공평과 포용', '책임감', '신뢰', '존중'이라는 평화 가치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F4P와의 협약을 통해 F4P Korea로 활동합니다.



민족의 한마음을 찾아서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정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도 내 얼굴을 닮아 곧바로 같은 민족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그들과 내가 하나된 마음을 가져본다.

손진우 _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어떻게 한민족의 끈을 이을까?



지난 5월 7일 목단강 녕안시조선족소학교의 도서관(네모상자) 개관식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석했다. 내가 찾은 땅은 일제강점기 압박받던 우리 조상들이 이주해 온 삶의

터전. 항일 투쟁의 땅, 옛날 만주의 땅이다. 그때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의 모습에 나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이 땅에는 발해건국을 비롯한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고 민족항일투쟁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 길가 즐비한 낮은 상점 간판에는 한글이 그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가는 행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나는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하면서 우리 민족의 한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한 민족의 끈을 이을까 생각해보기로 했다.

다음날 나는 녕안시조선족소학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정에 들어섰다. 운동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건강 체조를 하며 리더의 구호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도 내 얼굴을 닮아 순간 같은 민족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잠시나마 내 안에는 너희 들이 있고 너희 들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해 본다. 아직 한 민족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느껴 본다. 정말 그들과 내가 하나된 마음을 가져본다.

녕안시조선족소학교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지원한 3,000여만 원의 지원금에 녕안시 교육청의 예산을 보태어 훌륭한 도서관을 건립했다. 이름은 특별히 '네모상자'로 명명했다. 도서들도 제법 갖추어 도서진열장을 거의 채웠다. 함께 만들어진 휴식공간과 실내 채육관은 우리 일행들의 봉사행보에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코너 마다 서 있는 학생들은 상냥한 웃음으로 구석구석 친절히 소개를 해주었다. 그들의 얼굴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듯 새로운 도서관 활용에 많은 꿈을 갖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이 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민족이라면 어디든 지원대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단 북한이 아니라 해외 우리민족이라면 어디든지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설혹 남북으로 갈라지고 지구 곳곳 어디에서든 흩어져 있어도 한민족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로

복원을 하는데 지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번 중국 조선족학교에 대한 도서관 개설 지원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지속 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한마음 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집에서 녕안시조선족소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신 목단강 향미로 밥을 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쌀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감돌아 한민족의 감정이 향기로 승화됨을 느꼈다.

녕안시조선족소학교 '네모상자' 도서실 개관식 참관기

원순자 _ 경기교육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중국의 목단강 공항을 향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번 방문학교인 해림시 녕안시조선족중학교의 아이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궁금함이 깊어졌다. 경자협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력 사업으로 조선족자치구의 조선족 학교에 도서관 지원을 해온지 4년여가 되었고, 첫 번째 연변 자치주 신동소학교의 도서관개관식에 참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한글로 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생생하게 느끼고 돌아와 우리의 아이들이 읽고 난 책들을 수합하여 조선족학교에 보내는 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전개하려고 그간의 사업전개 현황이 더욱 궁금하였다.

'네모상자'라는 도서관의 이름은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봐, 자유롭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도서관이 책을 소장하고 대여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독서를 통해 세계를 알고 지역과 시공을 뛰어 넘어 무한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와 상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 만들기 사업 담당자는 10여개의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지닌 교사가 있어야만 도서관이 정체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서교사 교육의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사서교

사 연수 방향과 계획을 들으면서 도서관 사업이 심층 깊게 전개되고 있음을 느꼈다.

녕안중고교와 유치원 소학교를 둘러보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높은 교사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재기발랄한 모습들과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에 배우고자하는 열망이 가득찬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노벨평화상을 탄 카일라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깨우고 내면의 인간성을 키워 남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통한 교육활동에서 능력을 키우고 인간성을 키워 세상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알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학교방문 이후의 행사로 '한중우의 공원' 방문과 발해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의 발자취 속에서 선조들의 나라사랑의 절절함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뜻깊은 미래와 과거로의 여행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DMZ 통일평화기행

분단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DMZ 통일평화기행을 다녀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안타까운 분단현실을 소개한다.

정리 _ 편집실



DMZ 통일평화기행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영통중학교
3학년
하준영



영통중학교
전유빈

처음 임진각을 갔을 때 외국인인 많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외국인 관광명소 첫 번째가 임진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분단이 다른 나라의 관심 대상이라는 사실에 무척 놀랐는데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 분단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녹슨 증기기관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개성역에서 신의주로 향하던 도중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 멈춰 선 기관차라고 들었는데요. 폭탄에 맞은 기관차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 정말 북한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휴전선 하나에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제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동시에 행복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통중학교
2학년
권순재

전망대에서 보니 경계선을 넘어 북한이 보였습니다. 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나무가 없이 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화재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지만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통일평화 기행을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휴전중인 국가임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요. 만약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는 통일이 된 후 분단의 과거를 회상하는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수원중학교
3학년
손도효

서울에서 최전방역인 도라산역까지 오는 전철이 하루 두 대 있다고 합니다. 생각 보다 쉽게 오갈 수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곳은 남한의 마지막 역이 아닙니다.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통일에 대해 희망적인 문구이지요. 전 이것을 보고 정말 이대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였습니다. 도라산역에서 유라시아의 철도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이 모든 철도들이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경의선과 연결되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지구촌 일원으로서 남북통일이 하루 빨리 훈훈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리아

<우리함께>는 평화와 통일 문제를 책이나 영화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해석하는 연재코너입니다. <우리함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통일 문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해보려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강지현 기획홍보팀 간사



분단 70년 남과 북, 친구가 되는 첫걸음
하나 되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

핑퐁 외교가 얼어붙은 중-미의 정치 토양을 녹인 지 44년이다. 반면 남과 북은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남과 북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한반도에서도 탁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된 적 있었다.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다. 이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중국을 꺾고 우승했다. 최초의 남북단일팀이 만리장성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탁구 대회의 승리가 아니었다. 남북이 협력하면 큰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긴 사건이었다. 영화 <코리아>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감격의 역사를 사실감 있게 연출한다.

현정화와 리분희를 기억하는가? 한반도기를 가슴에 달고 중흥무진 했던 그들이 잊혀가는 만큼 남북교류의 기억도 희미하다. 더욱이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 동북아의 국제정치 토양은 또 다시 얼음장처럼 냉각되고 있다.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남과 북의 입장만 고달프다. 한반도 평화도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영화 <코리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알려준다. 그것은 오해와 적개심을 해소하고 친구가 되는 일이다.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중국팀의 장벽을 넘은 남북단일팀의 환상적인 호흡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남북 선수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 싸우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경기의 우승보다도 하나 되는 것부터가 크나큰 도전이었던 것이다.



만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남북단일팀은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결국,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며, 화해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되기의 첫걸음은 남북교류다. 그 교류의 중심에 '인도적 지원'이 있다.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이 친구가 되기 위해 인도적 지원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화 <코리아>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이후 해결 할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남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영화를 보자.

<코리아>에는 현정화와 리분희의 탁구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여자 선수 연정과 북한남자 선수 경섭의 사랑도 남북 관계 현실의 안타까움을 잘 드러낸다. 연정이 경섭에게 고백을 하며 경섭의 마음을 묻자 경섭이 성토한다.



북한 남자선수 경섭에게 팔짱을 끼고 고백하는 남한 여자선수 연정

경섭: 나도 연정 동무가 싫진 않습니다.
대회 끝나면 피차 얼굴도 못보고 살건데
이카다 마음에 정분이라도 나버리면
기 마음을 품고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영화적 장치라 할지라도 남북관계 현실을 적절히 보여준다. 어렵게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 신뢰를 구축해도 만남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멀어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화의 마지막 현정화와 리분희의 이별 장

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으로 떠나는 리분희에게 건네는 현정화의 마지막 인사를 보자.



오열하고 있는 현정화와 리분희

정화: 언니 나 뭐라 그래
전화할게도 안되고
편지할게도 안되고
뭐라고 인사를 해
나 뭐라고 해야 되냐고
...
언니 나 잊지 마
우리 또 만나

현정화와 리분희는 헤어지면서 또 만나자고 말하지만, 그들은 1993년 이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분단의 아픔이 한민족의 가슴에 또 한층 새겨진 것이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도적 지원이 서로 간의 만남이라 한다면, 그 만남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은 지속성의 확보다. 결국, 남북이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만남의 보장이다.

영화 <코리아>는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최초의 남북단일팀 우승은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고, 남과 북의 선수들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은 지속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남북교류의 상징과 같았던 현정화와 리분희의 희망 가득한 얼굴이 그립고, 남과 북이 처음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어냈던 그 감격의 순간이 그립다면 영화 <코리아>를 추천한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월

- 2~4일 지원사업 협의·점검 차 중국 연길 출장
- 3일 2014년 회계감사
- 4일 2월 상임위원회
- 4~17일 2월 학교과사수거 활동
- 12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6일 '2014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자료집 발간
- 17일, 21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4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25일 제75차 공동대표회의
- 27일 광복 70주년 · 6.15공동선언 15주년 시민토론회

3월

- 3~4일 사업협의를 위한 대북 실무접촉 (중국 심양)
- 9일 경기도 사무소 (우리민족경기센터) 이전개소식
- 19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5일 3월 상임위원회
- 26일 평화나눔센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28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8일~4월 4일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4월

- 1일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식 (프레스센터)
- 3~4일 평화활동가대회 (따주 민족화해센터)
- 7일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자자체 회의 통일교협협의회 정기총회
- 10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11일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식
- 15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기초발표: 빅데이터를 통한 북한 동향 분석 / 정재현 대표 (솔샘넷)
- 18일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2강
- 25일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3강

5월

- 1일 서울시교육청 한민족어린이 지원기금 전달식
- 2일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종강식
- 2~9일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 8일 흑룡강성 영안중학교 도서관(아홉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영안시)
- 16일 독일 작센주마틴 돌리히(Martin Dulig) 부총리 간담회
- 20일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열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오상시)
- 20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2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기초발표: 대북 지식공유사업(역량강화사업) 현황 / 문경연 박사(수출입은행)



6월

- 3일 6월 상임위원회
- 8일 익산농기계, 대북지원용 농기계 기탁식 (회의실)
- 14일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천도교 수운회관)
- 17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거래의숲 정기총회 (민화협)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기초발표: 국제개발지원사업과 ODA-북한에의 함의 / 김태균 서울대 교수
- 19~21일 길림성 훈춘시 제1조선족 소학교 도서관 지원 협약식 현지 방문
- 22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29일 제76차 공동대표 회의
- 30일 제61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1월

김나홍 5,000	김중국 10,000	박남용 50,000	송상운 30,000	윤영복 5,000	이정주 10,000
김담 10,000	김중순 10,000	박동우 5,000	송성도 10,000	윤종식 10,000	이정희 5,000
(주)대용파마텍 20,000	김중현 20,000	박동호 50,000	송운학 10,000	윤종현 10,000	이종석 30,000
(주)리치스톤 5,000	김주영 50,000	박주영 10,000	송은숙 10,000	윤주인 30,000	이종안 20,000
(주)상성파워일렉트릭 20,000	김대열 5,000	박문식 30,000	송재천 10,000	윤지열 10,000	이종호 5,000
김대중 5,000	김주태 5,000	박미란 10,000	송재배 10,000	윤창섭 10,000	이준동 1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	김주석 10,000	박병우 10,000	송지섭 10,000	이강희 5,000	이지원 20,000
김도규 20,000	김준석 20,000	박병진 10,000	신경서 10,000	이경미 5,000	이지은 10,000
(주)신도데아타통신 100,000	김준영 10,000	박복영 10,000	신경은 10,000	이경재 10,000	이지하 5,000
김동근 20,000	김준영 10,000	박성일 50,000	신규호 10,000	이경희 10,000	이진권 10,000
(주)어텔이아이 10,000	김동진 10,000	박성일 20,000	신기호 10,000	이규설 5,000	이찬우 1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김동찬 30,000	박성일 10,000	신동서 10,000	이근태 10,000	이찬용 10,000
김동환 30,000	김지석 5,000	박성일 5,000	신상문 10,000	이근행 10,000	이창재 20,000
(주)창이앤지 30,000	김진태 5,000	박성일 30,000	신수익 10,000	이기호 10,000	이창희 50,000
(주)클린피에스엠 80,000	김진기 10,000	박성기 40,000	신은결 10,000	이기화 10,000	이종욱 5,000
김복조 10,000	김명숙 30,000	박성진 30,000	신정식 10,000	이남재 5,000	이재주 10,000
김경중 20,000	김명희 10,000	박성찬 10,000	신진현 10,000	이남철 10,000	이필원 10,000
김기성 30,000	김미홍 10,000	박소희 10,000	신경라 50,000	이대호 10,000	이향 10,000
김남준 10,000	김민근 10,000	박소 10,000	심나리 10,000	이대민 10,000	이현숙 5,000
김단호 10,000	김민재 10,000	박순성 10,000	심말선 10,000	이동석 20,000	이현수 100,000
김동환 20,000	김병규 10,000	박애스더 50,000	심현희 10,000	이동섭 10,000	이현우 50,000
김영희 10,000	김병균 10,000	박영민 20,000	안영화 20,000	이동수 10,000	이현정 10,000
김선미 5,000	김병준 100,000	박영규 10,000	안상화 5,000	이동영 10,000	이현정 10,000
김성부 10,000	김상수 20,000	박유중 10,000	안세홍 20,000	이동원 10,000	이해경 10,000
김승현 20,000	김상근 20,000	박의용 10,000	안학찬 30,000	이명수 10,000	이해란 5,000
김승희 10,000	김상근 20,000	박인숙 10,000	안희숙 5,000	이복희 10,000	이해록 10,000
김신 10,000	김상범 30,000	박인숙 60,000	안정익 5,000	이무철 20,000	이해림 30,000
김성범 10,000	김상수 10,000	박인숙 10,000	안정식 10,000	이미래 5,000	이해린 10,000
김정미 5,000	김상식 10,000	박재욱 10,000	안정금 5,000	이민영 10,000	이해성 5,000
김정중 10,000	김성우 10,000	박정란 10,000	안종출 5,000	이병재 10,000	이홍우 20,000
김지영 50,000	김성운 5,000	박정우 10,000	안종상 40,000	이병도 10,000	이홍순 20,000
김진주 100,000	김석진 10,000	박정자 10,000	안광순 20,000	이병중 10,000	이효식 10,000
김창구 10,000	김석영 10,000	박종욱 10,000	양근성 10,000	이병재 10,000	이희원 5,000
김채현 20,000	김선영 5,000	박종욱 20,000	양문수 10,000	이병복 10,000	이희중 5,000
김찬필 20,000	김선미 5,000	박종희 10,000	양순환 10,000	이상업 3,000	이희택 50,000
김필희 5,000	김선배 10,000	박종희 10,000	양우성 10,000	이상학 10,000	임강택 20,000
김필희 10,000	김선창 50,000	박지연 20,000	양윤정 2,000	이상호 10,000	임광호 30,000
김해경 10,000	김선희 10,000	박지호 10,000	양인보 20,000	이상훈 10,000	임금숙 10,000
김희주 5,000	김선봉 40,000	박현철 10,000	양진선 5,000	이석용 10,000	임길실 10,000
경진TRM 20,000	김성우 5,000	박형중 30,000	양해준 10,000	이선 10,000	임동진 10,000
고기철 10,000	김성숙 10,000	박혜영 50,000	양희석 10,000	이선규 10,000	임동진 10,000
고병우 10,000	김희순 10,000	박희순 10,000	양철 5,000	이선호 5,000	임문희 10,000
고봉근 10,000	김성진 100,000	박희순 10,000	양기철 10,000	이성민 10,000	임병수 20,000
고석주 10,000	김성철 10,000	박희순 10,000	양용수 20,000	이성수 5,000	임병철 10,000
고재광 10,000	김수영 10,000	박재만 5,000	양주일 20,000	이성우 10,000	임세진 10,000
김수현 20,000	김수원 20,000	박진섭 10,000	양규현 10,000	이성철 10,000	임인기 10,000
고정환 20,000	김수현 10,000	배강우 10,000	양동현 10,000	이성호 5,000	임정원 5,000
고정훈 30,000	김순만 20,000	배덕호 10,000	양철 50,000	이성구 100,000	임정애 10,000
고희갑 10,000	김순주 50,000	배수원 20,000	양재현 10,000	이수연 20,000	임준수 20,000
곽동선 10,000	김신영 10,000	배수현 20,000	양재현 20,000	이수연 5,000	임현직 10,000
곽재원 10,000	김신희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곽현 10,000	김영모 2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곽국모 10,000	김영수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구수영 10,000	김영주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구영주 10,000	김옥영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정희 20,000	김용덕 3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병오 10,000	김용연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보미 10,000	김용현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숙희 5,000	김용희 5,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순연 10,000	김우영 2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우근 10,000	김우진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우근 20,000	김원국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권희식 30,000	김원희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기영 5,000	김은경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기관 10,000	김은혜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미성 10,000	김은희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창배 10,000	김용상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갑수 10,000	김인근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갑식 30,000	김인숙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경태 10,000	김일환 10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계순 5,000	김일환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관식 20,000	김정훈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관호 10,000	김재범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광아 20,000	김재욱 2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광진 10,000	김재현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근우 10,000	김재홍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근우 30,000	김정호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금순(이)호준 30,000	김정미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금평 25,000	김정미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기원 10,000	김정미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기은 50,000	김정수 2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기판 10,000	김정수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길자 20,000	김정수 1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김갑철 5,000	김정수 20,000	배정민 20,000	양재현 20,000	이숙희 5,000	장길수 5,000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녃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